

글. 김은미_ Kim, Eun-mee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조교수

2014 프리즈커 어워드

건축분야 최고의 영예인 프리즈커 상의
2014년도 수상자, 건축사 시게루 반

2014 Pritzker Award



Japan Pavilion, EXPO 2000, Hannover, Germany 2000

시게루 반이 2014년 프리즈커 상 수상자가 되었다. 독창적인 재료의 사용과 재난 지역을 위한 프로젝트 등으로 알려진 그는 뉴욕, 파리, 도쿄에 사무실을 설립하여 운영 중이다. 그는 건축계의 가장 영예로운 상으로 알려진 이 상을 수상한 7번째 일본인 건축사가 되었다.

본인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시게루 반은 아주 놀란 반응을 보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나는 Martha Thorne(프리즈커 재단 상임이사)이 나에게 전화를 걸어 얘기할 때 그녀가 농담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시게루 반은 이전에 이 상을 위한 심사위원이기도 해서, 수상의 의미에 대해 예리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나는 내가 왜 수상자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수상자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안다. 이 상의 의미는 나에게 사회적 프로젝트를 계속해가라는 하나의 격려와 독려 같은 것이다. 나는 이러한 사회 프로젝트 이외에도 뮤지엄과 같은 프로젝트도 한다. 그래서 나는 뮤지엄과 같은 권위 있는 프로젝트와 재난지역을 위한 일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고 항상 노력한다. 그렇기에 나는 이번 수상을 업적의 성취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보내주는 독려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Cardboard Cathedral



심사단은 혁신적인 재료와 구조 사용의 특징을 심사문에 명시하였다. 그가 설계한 프랑스 메츠에 위치한 퐁피두 센터 위성 뮤지엄은 가장 좋은 예이다. 목재를 엮어 만든 망태처럼 생긴 슈퍼 스트러처를 덮은 가벼운 반투명한 막표피 지붕이 이 콤플렉스의 내외부를 덮어주어 뮤지엄의 물리적인 경계를 흐리게



Left to right: Wall-Less House; Centre Pompidou Metz; Paper Log House, India.



Metal Shutter House, New York.

만들어 준다.

시게루 반은 페이퍼 튜브나 폐기된 선적용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임시 용도나 항구적 구조물을 만들어 낸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의 작업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일본 고베에 지어진 Paper Church와 같은 프로젝트나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 지어진 Cardboard Cathedral과 같은 프로젝트에서 지진과 다른 자연 재난 이후 지역을 반영한 모습을 앞서 언급한 재료들의 조합들로 위엄 있고 품위 있게 공간으로 표현해내는 진화를 보여 주고 있다.

2012년 중국 왕슈, 2013년 일본 토요 이토, 2014년 일본 시게루 반. 최근 3년간의 수상자를 대하는 한국 건축사의 마음은 복잡하다. 이런 상황에 “수상자를 내려면 건축사 각자가 모험심을 갖고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는 자하 하디드의 기사(연합뉴스)를 대하니 더욱 착잡하다. 필자는 이미 그녀의 젊은 시절 환경보다 척박한 환경에서 피눈물 나게 노력하는 재능 있는 건축사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건축은 모든 문화의 집합적, 융합 표현물이며 그 문화의 힘을 보여 주는 척도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기에 선진국들은 그 “문화”를 수출하기 위해 내부에서의 공정한 경쟁 유도과 제도 개선, 해외 진출 지원 등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건축을 건설과 분리하지 않은 하위 영역으로 인식하는 민도, 건설과정 전체 지휘자로서의 지위 인정과 그에 합당한 보수 지불 인식과 제도, 그리고 건축계 전체를 사지로 몰고간 지나친 가격 경쟁을 지양하는 내부의 자정 노력 등이 정착되지 않는 한 우리는 아마 앞으로도 오랫동안 먼 서방 세계만의 얘기가 더 이상 아니게 된 상황의, 주변국의 축포 소리를 들으며 시린 마음을 계속 안고 가게 될 것이다.

혹시 이렇게 척박한 상황에서도 건축계의 김연아 혹은 박태환이 출현할 거라는 안이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빨리 그 생각을 반드시 접어야 한다. 이미 대학의 학생들도 건축계의 절박한 상황을 알고 움츠린 마음은 이미 만연하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다행히 걸출한 인물이 출현한다면 더 이상은 한 개인의 인생을 건 노력에 국가가 그 등에 업혀 영광을 누릴 요행을 꿈꾸지 않아야 하며, 국가 문화의 힘이라 포장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것은 국가나 제도, 환경의 지원을 받지 못한 걸출한 개인의 힘이므로. ㄷ